

광주·전남 아파트 시가 총액 28조원

가구수 총 32만채 달해...전국은 600만채 육박

신규 분양 많은 광주 북구 7조4천억 가장 높아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이 28조원을 돌파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최근 전국 아파트 598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시가총액을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은 32만1천여 가구의 합산액이 28조3천9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아파트 시가총액 26조7천7억 원에 비해 1조6천억 원(5.7%) 정도 늘어난 수치다.

광주의 경우 21만2천여 가구, 21조2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각각 0.8%, 4.85% 증가했다. 전남은 10만

8천여 가구, 7조2천억 원으로 각각 1.9%, 9.84% 늘었다.

광주에서는 북구가 7만8천가구, 7조4천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구(5만5천가구, 6조2천억 원), 남구(3만2천900가구, 6조2천억 원), 동구(8천900가구, 1조1천억 원) 순이었다.

시가총액에서 북구가 지난해 대비 10.39%, 남구 6.35% 증가한 반면 서구는 0.32% 줄었다.

전남은 목포시가 3만가구, 2조4천억 원으로 선두였고 순천시(2만8천가

구, 2조원), 여수시(2만7천가구, 1조5천억 원), 광양시(1만1천가구, 3천600억 원), 나주시(3천700가구, 2천200억 원), 무안군(1천400가구, 2천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무안군의 경우 지난해보다 1천331가구나 늘어 시가총액에서 무려 5천178%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속에서도 시가총액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새 아파트의 입주와 추진되면서 조사대상 아파트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국 아파트는 597만9천994가구로 시가총액은 1천606조2천1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654조207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529조9천859억 원) ▲인천(83조7천171억 원) 순으로

수도권이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의 78.93%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117조6천803억 원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송파구(68조3천416억 원)와 서초구(65조3천403억 원)가 뒤를 이어 강남권 3개구가 1~3위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70조7천961억 원) ▲대구(52조455억 원) ▲경남(42조3천69억 원) ▲대전(36조2천69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은 서울 강남구의 24%에 불과, 수치상으로 강남 아파트 한채를 팔면 이 지역내 아파트 다섯채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수년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가금류업계 "AI대책 세워달라"

치킨의식산업, 양계업 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련업계가 가금업계를 특별재난을 선포하고 이에 준하는 대책과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치킨의식산업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7개 관련 단체로 구성된 '한국가금산업발전대책협의회(이하 한가협)'는 13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차 AI 재조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가협은 성명서에서 "보건복지가 족부는 양계, 오리농가와 가금업계를 죽이는 무책임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마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을 즉각 해임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가협은 나아가 "정부는 우리나라 가금업계를 특별재난으로 선포하고 이에 준하는 대책과 합당한 보상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0만원대 '스트랩 슈즈' 광주신세계 '나인웨스트' 매장이 울며 패선 리더 핫아이템으로 10만원대의 '스트랩 슈즈'를 선보여 젊은 여성고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중기청·조달청 '공공구매 상담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광주지방조달청(청장 나영주)과 공동으로 15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공공구매 상담회'를 갖는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이 상담회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초기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마련됐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광주지방조달청을 비롯해 광주·전남 등 지자체와 산하기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

(전남 사업본부) 등 모두 14개 기관이 참여해 의로기기를 개발하는 (주)탑알앤디를 포함, 40여개 중소기업과 일대일 만남의 장을 갖고 판로개척 여부를 타진하게 된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공급자(중소기업)와 구매자(공공기관)의 관계를 넘어서 상호 상생협력관계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문조사를 통해 성과가 높을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상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남농축산물 고속도로' 놓는다

직거래 대폭 활성화... 소포장 단위 직판행사도 도·전남농협 서울서 '전남농축산물 페스티벌'

전남도와 전남농협이 15~17일 서울 농협유통 양재점 하나로공원에서 '녹색의 땅 전남농축산물 페스티벌'을 갖고, 농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직거래 고속도로'를 개통한다.

전남도와 전남농협이 15~17일 서울 농협유통 양재점 하나로공원에서 '녹색의 땅 전남농축산물 페스티벌'을 갖고, 농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직거래 고속도로'를 개통한다.

직거래 고속도로는 전국 친환경 농산물의 53%를 점유하는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 신선도를 높이고 유통 비용을 줄이자는 획기적인 유통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이번 페스티벌에서 전남도내 22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제경 향우회장들을 '전남농축산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된다.

전남농협은 또 전국 최우수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전남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평생고객 150만명 회원확보 선포식'을 갖고,

즉석에서 출장인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객 확보에 나선다. 농협조합원과 직원들은 택배 등 효율적인 마케팅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평생고객 150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 대형유통업체와 학교급식납품 대표학교·산지농협을 연결하는 600억원 규모의 납품계약(MOU)을 체결, 수도권지역의 소비자와 학생들이 우수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남농협은 지난달 2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도, 전남도 교육청과 함께 전남 축산물의 학교급식 확대를 결의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전남의 우수농축산물 이미지를 수도권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친환경 전문판매장 3개동을 설치하고 소포장단위로 직판행사를 갖는다. 또 22개 시·군별로 판매부스를 만들어 딸기·토마토·애호박·양상추·마늘·양파 등 원예작물과 채소류·곡류 등 100여개 품목을 판매한다.

특히 전국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5대 브랜드 쌀과 전남도 선정 10대 브랜드쌀을 전시·판매하는 전남쌀 홍보관을 설치, 전남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소비자와 만남의 장'도 마련해 연례초청 팬사인회와 사물놀이 한마당, 퓨전난타공연, 추억의 빵 튀기 시식회, 무료 풍선나뉘주기 등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이덕수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녹색의 땅, 전남도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축산물을 널리 알리고,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금호타이어, 美 조지아주 공장 기공식

다섯번째 해외 생산기지... 1억6천만달러 투입 2009년 완공

금호타이어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윌 카운티 공장부지에서 공장 기공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기공식에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소니 퍼듀 조지아주 주지사, 켄 스투어트 조지아주 상무청장, 오세철 금호타이어 사장 등 30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의 다섯번째 해외 생산기지인 조지아 공장은 최첨단 자동차 시스템을 갖춘 최신식 생산기지로, 메이컨-윌 카운티에 위치한 53만㎡의 부지에 1억6천500만달러가 투자돼 2009년 하반기에 완공된다.

금호타이어는 1차로 내년 하반기까지 연산 210만개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한 뒤 추후 연간 320만개 규모로 조지아공장 생산능력을 늘릴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조지아공장은 현대차 엘라바마 공장과



270km, 기아차 공장과 130km 가량 떨어져 있다. 조지아 공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제품은 초고성능 타이어로 신차장착용 및 교체용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중국의 난징·텐진·창춘에서 공장을 가동중이며 지난 3월 베트남 빈중성에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또 올해 말 난징에 트럭용 타이어(TBR)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조지아공장이 완공되는 2009년에는 국내 3천100만개, 해외 4천600만개 등 국내외에서 총 7천700만개의 생산능력을 확보해 '2015년 세계 5위 타이어 기업'이라는 중장기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기반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SONY BRAVIA

고객감사 大 축제

최고의 품질로 사랑하는 우리 TV BRAVIA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HDR-SR12

대형형, HD, HDR, 120Hz, 48인치, 1,500,000개 픽셀, 100% 휘도, 100% 색재현율, 100% 명암비

120Hz 48인치

48인치 120Hz 48인치 1,500,000개 픽셀 100% 휘도 100% 색재현율 100% 명암비

심삼풀이 전화 한 통에 남편 목숨을 건진 사연!

전통운세 060-700-3657

통운세는 심삼풀이 전화 한 통에 남편 목숨을 건진 사연! 통운세는 심삼풀이 전화 한 통에 남편 목숨을 건진 사연! 통운세는 심삼풀이 전화 한 통에 남편 목숨을 건진 사연!

통운세는 심삼풀이 전화 한 통에 남편 목숨을 건진 사연! 통운세는 심삼풀이 전화 한 통에 남편 목숨을 건진 사연! 통운세는 심삼풀이 전화 한 통에 남편 목숨을 건진 사연!